

Robert Vannoy , 신명기, 7강

© 2011, Robert Vannoy 박사 , Perry Phillips 박사 및 Ted Hildebrandt

언약 형식의 역사적 의미, Sitz im leben

Review

우리는 2b까지 개요의 3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의 대부분을 2. “조약 형식의 진화와 신명기의 연대에 대한 함의” 에 대해 논의하며 보냈고, 그 아래에서 “a” 와 “b” , 즉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자세히 살펴보기” 를 살펴보았습니다. 에살하돈의 아시리아 조약과 아람어 조약” , 이는 Sefire 의 “b” 이며 해당 조약의 구조 형식을 히타이트 조약과 비교합니다. ‘아람조약을 보고 맺은 결론’ 이후에는 거기에서 멈춘 것 같아요 . 우리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c. “조약 규약의 의미.” 나는 결론적으로 클라인이 조약 형태의 진화에 대해 이야기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씨 . “조약 규약의 의미.” -- J. 톰슨: 초기 군주제 데이트 콘트라 클라인
그러면 J. Thompson 의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 당신은 Thompson을 읽고 있으며, Tyndale 시리즈의 IVP 책 51-52페이지에서 그는 Kline의 결론에 대해 몇 가지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톰슨 자신은 신명기의 연대를 기원전 11~10세기로 주장하는데 , 이 연대 는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는 작품 뒤에 있는 모세를 보지만, 편집 과정을 통해 그것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톰슨의 책에 관한 한, 그는 확실히 Wellhausen의 7세기-기원전 621년 연대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솔로몬-다윗 시대이고, 그것의 상당 부분은 심지어 모자이크까지입니다. 그러나 관련된 편집 과정은 연합 군주제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1. 모세 이후에 형성된 신명기의 형식 내 생각에 클라인의 견해에 대한 그의 의구심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보기에 신명기가 모세보다 오랜 후에 쓴 누군가에 의해 조약 형식의 형태로 주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 시간. 그것이 51페이지의 맨 아래 문단입니다. “ 모세 시대 이후 오랫동안 기록한 누군가에 의해 신명기가 고대 조약의 형태로 구조되었을 가능성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톰슨의 기본 논제는 프랭키나(Frankina) 라는 사람의 논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당신의 참고문헌에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참고문헌인 R. Frankina 의 4페이지를 보면 , “The Vassal Treaties of Esarhaddon and the the Vassal Treaties of Esarhaddon and the 신명기의 데이트.” 그 기사에서 프랭키나는 특히 신명기 28장의 조약 저주가 아시리아 조약 저주에 의존한다고 주장하며, 그것이 신명기의 늦은 연대에 대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약 용어와 후기의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Frankina는 그렇게 주장했고, 지난 주에 제가 언급한 Moshe Weinfeld 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그것은 Moshe Weinfeld의 저서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stic School*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신명기의 조약 양식이 히스기야와 요시아 시대의 궁정 서기관들에게 귀속되어 그 양식이 나중에 자료에 부과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톰슨은 히스기야와 요시아까지 그렇게 늦게까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가 말하는 것은 “조약 형식의 형태가 오래 후에 살았던 누군가에 의해 신명기에 주어졌을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 모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다. 2. 톰슨은 역사적인 프롤로그를

강력한 날짜 표시기

로 보지 않습니다. 클라인의 주장에 반대되는 또 다른 것은 역사적 프롤로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톰슨은 역사적 프롤로그 주장이 강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역사적 프롤로그의 부재는 무엇을 주장하는가? 역사적인 프롤로그 주장은 아시리아와 아람어 조약에는 조약이 없고 히타이트 조약에는 있고 그것이 대조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일한 대조가 아니라 대조 중 하나이며, 관계 조약뿐만 아니라 조약의 어조와 성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확실히 중요한 대조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 아시리아와 아람어 조약이 '서문을 가정' 했거나 구두로 진술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즉, 거기에서는 볼 수 없지만 아마도 가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의 입장에서 상당한 가정입니다. 그는 아마도 그것이 구두로 언급되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구두로 전해진 역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또한 세피레 의 아람어 조약으로 인해 그 중 일부가 정상에서 깨졌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아마도 우리가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부서진 부분 에 역사적 프롤로그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 그래서 그는 역사 프롤로그 논증을 그런 식으로 약화시키려고 한다.

게다가 그는 역사적 프롤로그가 포함된 7세기 문서 의 증거를 주장합니다. 즉, 그는 논쟁의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는 역사적 프롤로그가 있는 7세기 조약 문서(늦어졌을 것임)에 대한 증거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 초기 조약에는 역사적 프롤로그가 있었지만 후기 조약에는 역사적 프롤로그가 없었다는 조약 형태의 진화에 기초하여 논쟁을 벌이려고 한다면, 하나가 있는 후기 조약을 제시하게 됩니다. 조약 형식의 진화가 결정적이라는 주장. 그러나 이것이 그의 기본적인 주장이다. 52페이지 상단을 참조하세요. 그는 "그러나 실제로 역사적 프롤로그가 발생하는 기원전 7세기 조약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그의 각주에서 그는 7 세기 조약 의 역사적 프롤로그에 대해 AF Campbell을 언급합니다. *Biblica* 에 출판된 텍스트 . 3. 톰슨에 대한 대응과

역사적 프롤로그를

통한 후기 조약 따라서 톰슨의 두 가지 요점에 대한 응답으로, 먼저 후자의 요점에 대한 응답으로, 그가 인용한 텍스트는 그 자체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텍스트입니다. 그것이 7세기 문헌의 역사적 프롤로그에 대한 분명한 증거인지 여부는 그리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기사가 있습니다. 참고 문헌에 있습니다. 그가 인용한 기사는 AF Campbell이 쓴 것이지만 EF Campbell이 쓴 기사도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의 4페이지를 보면 서로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가 인용한 것은 AF Campbell이지만 바로 아래에는 "Moses and the Foundations of Israel"이라는 EF Campbell의 기사가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EF Campbell은 "문제의 텍스트(그가 언급하고 있는 텍스트)는 매우 단편적이며 특히 처음에는 읽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 텍스트를 본 적이 없지만 분명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텍스트입니다.

최근에 당신이 읽도록 배정받은 기사는 KA Kitchen이 쓴 것입니다. 이 기사는 기본적으로 Nicholson이 쓴 *God and His People: Covenant and Theology in the Old Testament* 라는 책을 분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Kitchen의 분석(132페이지, 각주 37)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 Nicholson이 끌어낸 McCarthy와 Weinfeld 의 작업은 첫 번째 예에서 14 세기 /13 세기 조약 간의 명확한 차이점을 모호하게 합니다. 전자의 조약에는 역사적 프롤로그가 있지만 후자에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 은 그것이 대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i

tchen은 초기 제품에는 그런 기능이 있지만 후자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각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슈르바니팔과 키다르 의 조약에서 추정된 공간은 프롤로그가 아닙니다. 지금은 잃어버린 소유권과 증인 이후, 그에 따른 Ashurbanipal의 처분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는 단 하나의 역사적 암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톰슨은 톰슨이 7 세기 텍스트 에 역사적 프롤로그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 호소하는 것이 실제로는 역사적 프롤로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톰슨이 제시한 요점이 좋은 기초를 가지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또 다른 기본 요점은 “누군가가 모세 시대 이후에 조약 형식의 형태로 신명기를 주조했다” 는 것입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신명기의 형태에 대한 좋은 설명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것이 클라인의 논제를 반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또 다른 모델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밀접하게 일치하는 자료가 모자이크 시대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이 모자이크여야 한다고 말하는 클라인의 논제를 확실히 반증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이 Kline의 가장 강력한 주장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것은 훨씬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 그런 형태로 캐스팅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확실히 Thompson은 그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증거의 무게가 클라인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학생 질문: 누군가는 왜 그런 가설을 세울까요?

반노이 : 그게 바로 요점이에요. 나 스스로도 그게 궁금했다. 톰슨의 견해가 일반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나를 놀라게 합니다. 그에게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가 언급한 또 하나의 일이 있는데, 곧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이 그가 신명기에서 포스트 모자이크 요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요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그러한 질문들은 적절하게 논의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증거의 무게가 모자이크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그 두 가지 점, 즉 프롤로그 논증과 누군가가 모세 시대 이후 오래 후에 조약 형식의 형태로 신명기를 캐스팅했을 가능성은 실제로 톰슨이 모세의 기원에 대해 매우 강력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클라인은 자신의 *성서 권위 구조 (Structure of Biblical Authority)* 10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신명기 조약이 특정한 경우를 위해 전체적으로 작성되었음이 틀림없다고 인정된다면, 이 책은 모세 시대 이스라엘의 상황에 널리 퍼져 있으며, 특히 무엇보다도 여호수아의 왕조 계승에 관한 이 조약의 핵심 관심사는 이 책의 기원이 7세기 라는 옹호자들에게는 항상 어색하다. 그들에게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나는 그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중에 그것을 추진한다면 왜 모세에서 여호수아까지의 계승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기록된 것으로 표현되는 시대에는 적합하지만 그 이후에는 의미가 없다.

4. McConville의 결론 여러분이 그의 책을 읽고 있는 McConville은 조약 형식의 이 문제도 논의합니다. 그는 자신의 책 전체 159면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의 조약 형식에 마지막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1-11장과 12-18장 사이의 언어적 연결이 실제로 7장과 12장 사이의 형식적 유사점으로서 1-11장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야훼의 행동과 그 행동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 사이의 관계를 지적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12~18장에서.” 따라서 1-11장은 기본적으로 역사적 자료이자 기본 규정인 반면, 12-18장은 이스라엘의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처음 11장에 야훼의 행동이 있고 12-18장에 이스라엘의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약의 다양한 구성 부분 중 오히려 조약의 행동-대응 특성이 책의 언어에 깊은 수준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히타이트 조약과 어느 정도 동등한 형태에 대한 인식이 실제로 그 형태가 히타이트 조약의 후반 단계에서만 도달했다는 신명기 이론에 의해 요구되는 믿음과 양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유배 당시의 책 구성. 우리는 근본적인 방식으로 그 이론(즉,

JEDP)에 도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현재 저자는 신명기 연구가 면밀한 조사를 통과 할 수 없는 이론에서 이 책을 이해하는 열쇠를 계속 추구하기보다는 분명히 아직 고갈되지 않은 조약 형식의 의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것이 바로 이 전체 질문에 대한 McConville의 의견입니다.

5. Kitchen의 결론 J. Barton Payne이 편집한 *New Perspectives on the Old Testament*라는 책에서 여러분이 읽고 있는 KA Kitchen의 다른 기사에서 “고대 동양’ 신명기’와 구약성서”의 마지막 인용문을 인용 하겠습니다 . 그 기사의 4페이지에서 키친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작가는 신명기와 기원전 14~13세기 의 놀라 을 정도로 안정된 조약 또는 언약의 형태가 일치한다는 수정처럼 분명한 증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따릅니다. 첫째, 신명기의 기본 구조와 그 구조에 특별한 성격을 부여하는 많은 내용은 인식할 수 있는 문학적 실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이것은 8~7 세기 의 문학적 실체가 아니라 늦어도 기원전 1200 년경의 문학적 실체이다.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은 이 개별 법이나 개념이 기원전 13 세기 후반보다 후기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선입견에 기초하여 언약 형식의 본질적인 특징을 제거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서기 19 세기

빈티지, 단지 생각만 하고 늦었다고 입증되지 않은 것의 경우.” 즉, 그는 다시 조약 구조 형식에 기초한 신명기 분석이라는 벨하우젠의 전체 아이디어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6. Mosai 저자에 대한

톰포슨의 다른 반대 의견 a. 선지자에 근거한 신명기는 그 반대가 아닙니다 . 이제 톰슨의 유보입니다. 우선, 그는 내가 언급한 것처럼 조약 조약 유추에 대한 클라인 주장의 강점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 책이 모세서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게 만드는 몇 가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신명기의 후기 연대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두 가지 주장을 인용합니다. 첫 번째는 (52페이지에 있음) “신명기를 연상시키는 선지자들의 구절은 선지자들이 신명기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신명기는 선지자들의 기록에 기초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즉, 예언서의 특정 부분과 신명기 사이의 언어 및 연관성의 특정 유사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신명기가 첫 번째이고 선지자들이 신명기에 익숙했음을 반영한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었습니다. 그는 그 구절들이 선지자들이 신명기를 알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명기는 선지자들의 기록에 기초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가 먼저이고 신명기가 나중에 나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글썄, 다시 말하지만, 그 진술이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사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주장인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서와 신명기에서 유사한 용어를 찾을 수 있는 두 구절 사이에 암시를 자주 발견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증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바다서와 예레미야 49장의 에돔에 관한 구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언어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오바다가 예레미야에게 의존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오바다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종류의 결론을 가지고든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든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주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는 그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유사점은 8세기 선지자들이 신명기를 발전적인 형태로든 최종 형태로든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쟁은 결론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 주장은 어떤 종류의 결정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실제로 신명기가 솔로몬 시대나 다윗 시대, 그리고 영국 시대에 있다면 이것은 매우 예언적인 것이며 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비유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이 논쟁이 결정적인 논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자이크 날짜와

맞지만 그런 식으로 모자이크 낱자를 증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대한 톰슨의 대규모 주석에서 그 용어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그는 “신명기학파” 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신명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향력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예레미야는 신명기 기록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즉, 그의 설교는 신명기를 낳은 이 신명기 학파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신명기의 영향력이 수세기에 걸쳐 내려와 예레미야의 언어를 구조화하는 데 도움을 준 것입니까 ? 그가 의미하는 바가 후자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가 그 말의 뜻이 바로 그것이기를 바랍니다.

비. 신명기에 대한 모자이크 이후의 추가 사항 그가 말하는 두 번째 것은 이 책에 모자이크 이후의 추가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52페이지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 만약 모자이크의 저자가 인정된다면, 모자이크 이후의 추가가 허용되어야 하는 곳은 어디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모자이크의 저자임을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을 최소한으로 합니다. 분명히 34장에 나오는 모세의 죽음에 관한 기록은 모자이크 이후의 기록이어야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일부 지리적 표현은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흥미롭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은 팔레스타인 내부에서 본 것 같습니다. “요르단 너머” 라는 표현은 말하는 사람이 팔레스타인에 서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모자이크 이후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그는 ‘요르단 너머’ 라는 표현이 ‘요르단 지역’ 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 표현에는 종종 정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이 “요르단 너머” 라는 지리적 표현에 대해 이 표현이 모자이크 이후의 표현임에 틀림없다고 결론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죽음에 관한 기록도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나는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내용이 책의 끝 부분에 첨부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책 전체가 그것에 이르고 있으며, 거기에 “그렇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라는 마지막 메모를 붙이는 것은 내가 보기에 이 책의 모세 기원을 받아들이는 데 큰 어려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르단 너머” 표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꽤 많은 곳에서 발생하며 때로는 요르단의 동쪽, 즉 우리가 트랜스 요르단(Trans-Jordan)으로 알고 있는 곳과 관련하여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첫 번째 장에서 이 문제가 꽤 많이 논의된 이유입니다(신명기 1:1 참조). “이것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말한 말이니라.” 제임스 왕은 “요단강 이쪽” 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beevar 하요단* . 이제 어떤 사람들은 “

이것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말한 말씀이니라” 고 번역했습니다. 그는 신명기의 말씀을 어디에서 말하였는가 ? 모압 평지에서. “그가 요단강 저편에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요르단 강이고 여기는 모압 평야입니다. 그래서 저자의 시점은 가나안 안쪽에서 요단강 서쪽인 이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1과 1:5에서도 그 내용이 사용되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요단강 이쪽 모압 땅” 이라고 말하지만 표현은 똑같습니다. 신명기 4:41, 4:46 등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편 신명기 3장 20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온다. 3장 20절을 보십시오, “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와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게 될 때까지 ” *haYordan* ,” 요르단 너머. “그러면 그 사람은 각각 내가 너희에게 준 자기 소유지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은 동쪽에 머물게 될 두 지파와 반 지파에게 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쪽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요단강 너머” 에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0절입니다. 25절에 “나로 건너가서 요단 저편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모압 평지의 관점에서 서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3장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왜 이러한 논증을 사용하는지, 왜 그가 이렇게 말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 표현은 종종 정의가 부족하고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핀 끝.” 더 흥미로운 점은 이 표현이 구약에서 24번이나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바다를 향하여”(서쪽을 의미함) 또는 “해돋이를 향하여”(예를 들어 요단강 너머 해가 뜨는 쪽을 의미함)와 같은 한정 조항과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동쪽을 뜻함. 즉, 여기에 추가된 한정 조항은 해당 문구 자체가 화자의 위치와 관련하여 결정적이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좀 모호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냥 문맥에 맞게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3장과 마찬가지로 한 참조는 한쪽을 참조하고 다른 참조는 다른 쪽을 참조하는 것이 분명하며, 그러면 작가가 해당 표현을 보는 관점에 크게 근거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요르단 강을 언급하는 문구인 것 같지만 이 문구는 양쪽 측면을 지칭하기 위해 어느 형태로든 사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요르단 지역에서” 를 의미합니다. 거의 '트랜스조던' 과 비슷하지만 상황에 따라 이쪽으로, 저쪽으로 적용합니다. 특별한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을 가리키는 것 같네요. 요단강 한쪽이든지 요단강 건너편이든지.

툼슨이 모자이크 날짜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가 조약 양식이나 모세의 죽음과 이런 종류의 표현을 언급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며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모세의 권위에 반대한다고

주장합니다.

글쎄요, 저는 톰슨의 사례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한, 조약 계약 비유는 모세의 기원 연대에 대한 강력하고 새로운 주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증거의 관점에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은 모자이크 저자에 대해 약 20-25년 전에는 없었던 강력하고 새로운 주장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씨. 조약/신명기 비유 중 일부에 의한 거부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 모두 Kitchen을 읽으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Nicholson은 최근 1986년에 나타나서 비유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조약 형식과 계약 형식 사이에는 어떤 유사점도 없다는 것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이제 이에 대한 Kitchen의 리뷰를 읽게 되므로 여기서는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프랭키나(Frankina), 웨인 펠드 (Weinfeld), 톰슨(Thompson)처럼 신명기가 조약 형식을 획득한 날짜뿐만 아니라 조약 조약 비유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를 거부하고 전형적인 벨하우젠으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신명기의 늦은 날짜 이전에 언약과 이스라엘에 대한 개념을 얻을 때마다 그는 그것이 이전 시대로 되돌아간다고 가정합니다. 언약 조약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날아갑니다.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조약 규약은 거의 반박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방에서는 이를 매우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 사람 반응이 좋아. 분명히 이것은 그의 초기 반응이며, 그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나중에 훨씬 더 철저한 치료를 할 것입니다.

디. 저주 논쟁

조지 멘덴홀(George Mendenhall)은 1954년 *The Biblical Archeologist*의 한 기사에서 히타이트 조약과 성서 언약 사이의 이러한 유사점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Weinfeld의 주장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조약의 저주 중 일부로 이동하면 Frankina는 Esarhadon 조약에서 일부 저주를 인용하고 그것이 신명기의 저주에 얼마나 가까운지 보여줄 것입니다. 자, 히타이트 조약이 1200년대에 있었고, 아시리아 조약이 여기 있었다면, 예를 들어 700년대쯤에 신명기와 평행한 아시리아 조약을 발견했다면, 와인펠트와 프랭키는 신명기가 아시리아 조약에서 차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저주의 표현이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Kline의 대응은 저주와 같은 것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Kitchen도 같은 일을 합니다. 저주와 같은 것의 공식화는 표현 유형으로 너무 고정관념이 되어 그 공식이 수세기 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가 1200년대에

공식화되었을 수 있고 저주와 같은 항목에서 발견되는 고정관념 표현의 연속성 때문에 700년 후 아시리아 조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저주의 공식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확실히 가능합니다. 키친은 이집트 시대의 예를 보여줍니다. 시간적으로 수 세기에 걸쳐 떨어진 텍스트에서 동일한 종류의 어법을 실증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자형. 전체 구조에 대한 성찰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당시의 전체 구조가 아닙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구조 내에서 유사성이 있을 수 있는 고립된 요소입니다. 유사점을 찾았지만 구조상의 유사점은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 는 구조의 일부이지만 구조의 한 단위일 뿐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러한 것들을 너무 강요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 히타이트 조약과 비교하여 신명기에 있는 내용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본 개요와 구조를 찾을 수 있지만 그 외에도 해당 요소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전체 정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언약 관계 전체와 언약 형식 자체가 맹세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정교한 형태의 맹세입니다. 제재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은 정교한 맹세의 형태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반복해서 말하며, 이는 그들이 언약을 받아들이는 맹세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 1장 4

절에서 다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선서를 일찍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약과 맹세는 거의 동의어이다.

에프. Moses' Words Kitchen의 리뷰에 따르면 이 용어는 매우 초기에 다른 문헌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Nicholson은 다른 언약의 모든 증거를 무시했으며 Nicholson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모세”라는 용어의 사용은 저자를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비유로 사용된 다른 두 제목은 자료의 저자나 책임에 대해 아무것도 암시하지 않지만 “모세”라고 말하면 개인의 이름으로 책임을 할당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증거가 종 모세가 어떤 말을 했고 또한 그가 어떤 말을 썼다고 톰슨이 제안한 것과 반대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신명기에 기록한 말이 그의 것인지, 아니면 모세의 기록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말은 전달되는 과정을 통해 전달됩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잠시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Alicia MacDonald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가 다시 해설함